

WEBVTT

00:00:31.601 --> 00:00:32.449

안녕하세요?

00:00:32.474 --> 00:00:34.929

GSEEK의 커리어 전문가

김소현입니다.

00:00:35.275 --> 00:00:38.386

오늘은 제가 여러분과

나눠보려고 하는 주제가

00:00:38.411 --> 00:00:42.703

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

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.

00:00:42.728 --> 00:00:45.574

내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 때

00:00:45.599 --> 00:00:48.464

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

생각하실 때

00:00:48.489 --> 00:00:51.511

대부분의 분들이 저 같은

상담가를 만나시거나

00:00:51.536 --> 00:00:53.640

어떤 교육을 받으시면

00:00:53.665 --> 00:00:56.355

항상 물어보시는 부분이

있는 것 같아요.

00:00:56.380 --> 00:00:58.855

마치 점쟁이를 만나시는 것처럼

00:00:58.880 --> 00:01:01.238

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

있습니다.

00:01:01.263 --> 00:01:03.391

내가 무슨 일을 하면

좋을 것 같아요?

00:01:03.416 --> 00:01:05.085

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?

00:01:05.110 --> 00:01:07.566

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

많다는 거죠.

00:01:07.591 --> 00:01:11.082

그런 만큼 생각보다

40대 중반 이후에

00:01:11.107 --> 00:01:14.407

특히 50대 이상인 분들은

내가 어떤 사람이고

00:01:14.432 --> 00:01:16.511

내가 무엇을 좋아하는
사람인지에 대해서

00:01:16.536 --> 00:01:19.578

잘 모르시는 분들이
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.

00:01:19.603 --> 00:01:24.929

어느 경우는 내가 원하는 일, 내가
잘 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

00:01:24.954 --> 00:01:28.660

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키면
내가 원래 좋아하던 일이 아니어도

00:01:28.685 --> 00:01:30.476

내가 원래 했던 것이 아니어도

00:01:30.501 --> 00:01:34.558

맞춰서 적응하시는 것들에
굉장히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

00:01:34.583 --> 00:01:38.367

정작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
어떤 부분에 피로를 느끼고

00:01:38.392 --> 00:01:42.742

어떻게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를
파악하실 기회가 없으셨던 거죠.

00:01:42.767 --> 00:01:46.277

그래서 오늘 2장의 주제는
나는 어떤 사람이고

00:01:46.302 --> 00:01:49.050

내가 알고 있는 내가
진짜 내가 맞나?

00:01:49.075 --> 00:01:52.488

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는
내가 잘 몰랐는데

00:01:52.513 --> 00:01:55.496

새로운 인생 2기를
설계하려다 보니까

00:01:55.521 --> 00:01:58.171

이런 부분의 성격을
내가 가지고 있구나.

00:01:58.196 --> 00:02:00.105

이런 부분을 원하는 것들이구나.

00:02:00.130 --> 00:02:03.992

이걸 좀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를
같이 가져보고자 합니다.

00:02:04.017 --> 00:02:07.097

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

생각을 하시지만

00:02:07.122 --> 00:02:09.675

그게 객관적인 수준에서,
어떤 기준에서

00:02:09.700 --> 00:02:14.734

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
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

00:02:14.923 --> 00:02:18.992

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한 진단은
사실 이 제2의 인생 설계나

00:02:19.017 --> 00:02:22.136

이런 것들 할 때도
쉽게 해 보기가 어렵고

00:02:22.161 --> 00:02:26.453

저도 이 짧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
전달해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

00:02:26.478 --> 00:02:28.601

오늘은 좀 간단하게 경력을

00:02:28.626 --> 00:02:32.136

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고
바라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는

00:02:32.161 --> 00:02:36.824

간단한 진단의 결과 해석의 방법을
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37.782 --> 00:02:40.984

제가 말씀드린 진단
혹시 다운 받아보시고 계신가요?

00:02:41.009 --> 00:02:43.386

아마 체크하려고 하실 텐데

00:02:43.470 --> 00:02:47.703

커리어 앵커라는 단어의 의미를
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.

00:02:47.728 --> 00:02:52.214

커리어라는 말은 알고 계시다시피
경력, 진로라는 단어이고요.

00:02:52.239 --> 00:02:57.390

앵커는 배가 이렇게 운항을 하다가
어느 공간에 정박하고 싶을 때

00:02:57.415 --> 00:02:59.539

닻을 내린다고 얘기를 하죠.

00:02:59.564 --> 00:03:02.864

그 닻을 내린 배는 쉽게
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?

00:03:02.889 --> 00:03:06.882

그런 맥락에서 지금 해 보시는

커리어 앵커라는 진단은

00:03:06.907 --> 00:03:11.160

상황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
일을 하시는 패턴이 바뀌었다 했을 때

00:03:11.185 --> 00:03:15.535

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
나의 고정된 방향성.

00:03:15.560 --> 00:03:18.621

나를 흔들지 않고 유지하는
속성이라는 면에서

00:03:18.646 --> 00:03:22.839

확인해 보실 수 있는 톨이다라고
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00:03:22.864 --> 00:03:25.183

문항은 총 40문항 정도 되고요.

00:03:25.208 --> 00:03:28.718

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
진단하시는 시간을 보면

00:03:28.743 --> 00:03:33.308

걸어도 한 7분에서 10분 이내로
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.

00:03:33.333 --> 00:03:36.140

단지 제가 요령을 좀 말씀드리자면

00:03:36.165 --> 00:03:40.554

특이하게 이 진단은 1점~6점 사이에
체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.

00:03:40.579 --> 00:03:44.519

보통 심리학 쪽에서 심리검사를
만들 때 리커트 척도라고

00:03:44.544 --> 00:03:46.667

5점 척도를 많이 쓰는데요.

00:03:46.926 --> 00:03:49.949

이 6점이 된 데는 한국의
중년 남성들 특징이

00:03:49.974 --> 00:03:52.097

사실 많이 반영되었습니다.

00:03:52.122 --> 00:03:53.210

아시죠?

00:03:53.235 --> 00:03:56.199

40대인 분들이 이 경력
진단이라는 것을

00:03:56.224 --> 00:03:58.132

처음 해 보게 됐을 때

00:03:58.157 --> 00:04:01.433

진단지를 딱 보시고 왜 하는 건지도
잘 모르겠고

00:04:01.458 --> 00:04:06.921
애매하면 1~5점 사이에
3점을 계속 쓰시는 거죠.

00:04:06.946 --> 00:04:08.582
그러면 통합을 하면 점수 자체가

00:04:08.607 --> 00:04:11.907
어느 유형도 애매하게 결과가
나오다 보니까

00:04:12.108 --> 00:04:16.062
처음에는 임시변통처럼
1~6점 사이라도 만들면

00:04:16.087 --> 00:04:17.976
아무리 한국의 중년 남성이어도

00:04:18.001 --> 00:04:21.003
3점, 4점 사이에서는
고민을 하시겠지라는

00:04:21.028 --> 00:04:23.562
사실 좀 가벼운 시초로
시작이 됐습시다만

00:04:23.587 --> 00:04:27.175
어느 정도 지금은 거의 비슷한
패턴으로 정착이 되어서

00:04:27.200 --> 00:04:31.218
1~6점 사이에
아주 낮은 적합도면 1점,

00:04:31.243 --> 00:04:32.839
매우 적합할수록 6점.

00:04:32.864 --> 00:04:35.574
이 점수 사이에 체크를 하시면
되겠고요.

00:04:35.599 --> 00:04:38.899
아마 성격 급하신 분들은
벌써 막 체크를 시작하셨을 텐데

00:04:38.924 --> 00:04:42.332
제 말을 듣지 않으면
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00:04:42.357 --> 00:04:46.765
진단지 맨 뒷장을 보시면
마치 시험지의 OMR카드처럼

00:04:46.790 --> 00:04:49.910
정답의 점수를 문항 옆에
바로 기재하시도록

00:04:49.935 --> 00:04:51.687

그 박스가 있습니다.

00:04:51.712 --> 00:04:55.710

박스에 점수를 바로 기재하시면
문항의 순서가 가로열로

00:04:55.735 --> 00:04:58.230

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
보이실 거예요.

00:04:58.255 --> 00:05:02.996

문항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
가로열로 점수를 하나씩 기입하시면

00:05:03.021 --> 00:05:06.082

나중에 다 입력만 하시면
눈치채셨죠?

00:05:06.107 --> 00:05:07.507

세로줄로 딱 합산하시면

00:05:07.532 --> 00:05:10.281

점수가 어느 유형에
내가 더 강점이 있는지

00:05:10.306 --> 00:05:14.441

보실 수 있는 형태로
이 채점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

00:05:14.661 --> 00:05:18.269

쭉 점수를 넣으시고 총점을
합산하신 다음에

00:05:18.294 --> 00:05:22.975

보통 저희가 앵커는 한 두 가지
상위의 점수가 랭크되어 있는

00:05:23.000 --> 00:05:25.730

한 두세 가지 유형을 보고

00:05:25.755 --> 00:05:29.070

또 제일 점수가 낮은 앵커
하나 정도를 보고

00:05:29.095 --> 00:05:31.511

검사 결과 해석을 해 드리는데요.

00:05:31.536 --> 00:05:34.734

나의 주앵커라고 되어 있는
이 정답지, 채점지에

00:05:34.759 --> 00:05:36.414

기록을 하시는 것들은

00:05:36.439 --> 00:05:39.968

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 경력의
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

00:05:39.993 --> 00:05:44.128

우선적인 두 가지 정도의
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

00:05:44.153 --> 00:05:46.667
그리고 제일 점수가 낮은 부분은

00:05:46.907 --> 00:05:51.960
이 채점표 상에는 사실은 피해야 할
앵커라고 서술이 되어 있지만

00:05:51.985 --> 00:05:54.695
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할
부분이 있는 게

00:05:54.720 --> 00:05:57.781
저의 경우에는 설명은
아직 드리지 않았습시다만

00:05:57.806 --> 00:06:02.000
여기에 있는 유형 중에 D의 유형인
안전/안정성이 1점이 나옵니다.

00:06:02.025 --> 00:06:05.515
1점이 나왔는데 제가
이 안전/안정성의 환경에 가면

00:06:05.540 --> 00:06:08.289
일을 되게 재미없이
못하는 사람이거든요.

00:06:08.314 --> 00:06:11.062
그러면 저에게는 피해야 할 앵커가
맞습니다.

00:06:11.087 --> 00:06:13.425
회피를 해야 하는
영역일 수 있는 겁니다.

00:06:13.450 --> 00:06:17.468
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
그냥 좀 별로인 거예요, 약간.

00:06:17.493 --> 00:06:22.742
다른 가치관이나 방향성보다
그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정도라면

00:06:22.767 --> 00:06:26.140
피해야 할 정도라고까지는
해석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

00:06:26.165 --> 00:06:29.675
그 점을 기억하셔서
점수 채점을 해 보시고요.

00:06:29.700 --> 00:06:33.464
그리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
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

00:06:33.489 --> 00:06:35.847
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
추구하셔야 하는

00:06:35.872 --> 00:06:40.300

삶의 가치관 유형별 특성을 지금부터
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06:41.279 --> 00:06:43.054
작성이 끝나셨나요?

00:06:43.341 --> 00:06:46.453
그러면 이 여덟 가지 유형이
몹시 궁금하실 텐데요.

00:06:46.555 --> 00:06:49.167
설명드리는데 여덟 가지 유형은
크게 이렇습니다.

00:06:49.192 --> 00:06:52.937
전문성 추구형, 리더십 추구형,
자율/독립 추구형,

00:06:52.962 --> 00:06:56.042
안전/안정 추구형
또 경제적 지향 추구형,

00:06:56.067 --> 00:07:00.144
봉사/헌신 추구형, 도전 추구형,
삶의 양식 추구형인데요.

00:07:00.169 --> 00:07:02.605
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07:02.821 --> 00:07:05.652
전문성 추구형은
한마디로 말씀드리면

00:07:05.677 --> 00:07:10.457
무언가 계속 본인의 전문성이 개발이
되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입니다.

00:07:10.482 --> 00:07:13.718
이 전문성 추구형인 분들이
몹시 답답하실 때는

00:07:13.743 --> 00:07:15.535
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

00:07:15.560 --> 00:07:18.503
전문성 추구형인 분들은
월급은 똑같지만

00:07:18.528 --> 00:07:21.453
내가 그 일을 통해서
무언가 계속 전문가가 되고

00:07:21.478 --> 00:07:24.617
내가 재능을 계속 개발을 하거나
발휘하는 기회가 없으면

00:07:24.642 --> 00:07:26.121
재미가 없습니다.

00:07:26.209 --> 00:07:29.509
되게 피곤한 삶을 사는

스타일일 수도 있죠.

00:07:29.534 --> 00:07:32.253
대신에 원하는 조직의 특성이

00:07:32.278 --> 00:07:35.769
그런 지속적인 무언가 전문성을
개발할 기회가 있을 때

00:07:35.794 --> 00:07:38.054
제일 직무의 만족도가 높으시고요.

00:07:38.079 --> 00:07:41.379
그걸 찾아서 움직이기도 하는
분들이라는 거죠.

00:07:41.404 --> 00:07:44.089
그래서 보통 제2의 인생 설계를
하시는 분들이

00:07:44.114 --> 00:07:46.003
전문성 추구형인 경우에는

00:07:46.028 --> 00:07:49.812
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
많이 선택하시고요.

00:07:49.837 --> 00:07:54.519
그런 직군의 키워드가
컨설팅, 교육, 자문, 코치

00:07:54.544 --> 00:07:56.667
이런 영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

00:07:56.692 --> 00:07:59.871
이 유형의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
그런 유형의 활동들에

00:07:59.896 --> 00:08:03.196
관심을 좀 기울여보시면
좋을 것 같습니다.

00:08:03.960 --> 00:08:06.902
다음으로 리더십 추구형
말씀드릴 텐데요.

00:08:07.176 --> 00:08:10.652
저희가 이 리더십 추구형도
다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

00:08:10.677 --> 00:08:13.484
관리자 추구형이라고도
얘기를 합니다.

00:08:13.509 --> 00:08:17.371
팀 멤버 안에 오히려 그런 영향력을
발휘할 기회가 없을 때

00:08:17.396 --> 00:08:19.285
재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.

00:08:19.310 --> 00:08:23.230

누구를 리드하고 그 사람들에게
내 이야기가 먹혀든다

00:08:23.255 --> 00:08:28.152

혹은 영향을 받는다 할 때 힘이 나고
에너지가 나는 분들이기 때문에

00:08:28.177 --> 00:08:29.187

조직 생활을 하실 때도

00:08:29.212 --> 00:08:32.683

리더 역할을 스스로 알아서
잘하시는 분들이었고요.

00:08:32.708 --> 00:08:37.039

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퇴직 이후에
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도

00:08:37.064 --> 00:08:40.364

그게 시니어 사회의 새로운
어떤 협동조합이라거나

00:08:40.389 --> 00:08:44.753

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든다 할 때
앞장서시는 것들을 잘하시고

00:08:44.778 --> 00:08:46.804

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.

00:08:46.829 --> 00:08:49.890

그래서 조직을 앞에서 끌거나
인력을 관리하거나

00:08:49.915 --> 00:08:51.882

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

00:08:51.907 --> 00:08:55.339

이 직무 활동의 키워드를
찾아보시는 것들이

00:08:55.364 --> 00:08:58.093

굉장히 만족스러운 제2의 인생을
설계하실 때

00:08:58.118 --> 00:09:00.203

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

00:09:00.721 --> 00:09:03.464

세 번째 유형은
자율&독립 추구형인데요.

00:09:03.837 --> 00:09:08.425

제가 이 유형이 앞서 말씀드린
전문성 추구형만큼이나 높은 사람이라

00:09:08.450 --> 00:09:11.238

저의 특성을
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
00:09:11.457 --> 00:09:15.164

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들을
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

00:09:15.189 --> 00:09:18.445

누가 간섭을 하고 하나씩
확인해 주고 확인해 줘서

00:09:18.470 --> 00:09:20.554

일이 빨리 끝나는 것들보다

00:09:20.579 --> 00:09:24.753

내가 알아서 해매더라도
누군가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

00:09:24.778 --> 00:09:26.570

본인이 그 일을 끝까지 알아서

00:09:26.595 --> 00:09:29.895

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
해결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.

00:09:29.920 --> 00:09:32.332

여행 가실 때 패키지 여행이나
이런 거 가시면

00:09:32.357 --> 00:09:35.457

혼자 이렇게 떠돌 수 있는
그런 유형일 수 있습니다.

00:09:35.482 --> 00:09:37.722

혼자 잘 즐기신다는
얘기이기도 하죠.

00:09:37.747 --> 00:09:42.527

그러다 보니 퇴직 이후에
이 인생 설계를 하시는 유형을 보면

00:09:42.552 --> 00:09:45.515

저희가 흔하게 사용하는
프리랜서라는 단어.

00:09:45.540 --> 00:09:49.402

어느 조직에 꼭 귀속이 되거나
출퇴근 시간이 꼭 어때야 하거나

00:09:49.427 --> 00:09:52.625

하루 종일 어떤 일들을
룰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면

00:09:52.650 --> 00:09:55.144

그런 일들을 좀 피하시는
경향이 있고요.

00:09:55.169 --> 00:09:59.304

1인 기업형으로 일을 하시거나
전문가의 한 군으로

00:09:59.329 --> 00:10:01.707

진짜 파트 타임으로
딱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

00:10:01.732 --> 00:10:03.738

나머지 시간은 내가 알아서
쉬겠다거나

00:10:03.763 --> 00:10:08.015

이런 부분들을 누리고 즐기시는
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.

00:10:08.040 --> 00:10:11.804

다만 이 자율&독립의
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

00:10:11.829 --> 00:10:16.316

누가 시켜서 일을 하면
한국말로 어깃장이라고 하죠.

00:10:16.341 --> 00:10:18.816

안 하고 싶습니다, 똑같은 일인데.

00:10:18.841 --> 00:10:21.414

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
자율권이 있을 때

00:10:21.439 --> 00:10:24.148

훨씬 재미있게 움직인다는 점에서

00:10:24.173 --> 00:10:29.539

그런 활동이 보장되는 영역으로
선택을 하시는 것들을

00:10:29.564 --> 00:10:31.121

권유드리고 싶습니다.

00:10:31.975 --> 00:10:34.382

다음 유형은 안전&안정성
추구형인데요.

00:10:34.407 --> 00:10:36.863

이 안전&안정성 추구형인 분들이

00:10:37.024 --> 00:10:40.046

과거에 내가 하던 일이
좀 만족스러웠어 하시는 경우에

00:10:40.071 --> 00:10:43.738

놀랍게도 실제로 공공 조직이나
공무원같이

00:10:44.277 --> 00:10:47.781

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순환이나
이런 것들 때문에

00:10:47.806 --> 00:10:49.753

하는 일들이 계속 바뀌었어요.

00:10:49.778 --> 00:10:52.664

전문성이라고 얘기하기가
오히려 좀 애매할 정도로.

00:10:52.689 --> 00:10:54.734

혹은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어요.

00:10:54.759 --> 00:10:56.589

그런데도 그래도 좀 괜찮았어,

00:10:56.614 --> 00:10:59.226

할 만했어 하시는 경우를
많이 봅니다.

00:10:59.251 --> 00:11:01.648

그러니까 그 이유가 하는 일의
내용이나

00:11:01.673 --> 00:11:05.261

직무의 실제 전문성이나
이런 것들보다는

00:11:05.286 --> 00:11:06.960

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

00:11:06.985 --> 00:11:09.812

얼마나 지속적으로
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?

00:11:09.837 --> 00:11:13.250

얼마나 정년이 보장이 되느냐?
오래 일할 수 있느냐?

00:11:13.275 --> 00:11:16.824

이런 부분들에 훨씬 관심을
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.

00:11:16.849 --> 00:11:20.671

그래서 안전&안정성 추구형을
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교적

00:11:20.696 --> 00:11:23.996

은퇴하시고 퇴직 이후에
일을 찾으실 때

00:11:24.021 --> 00:11:26.941

사실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00:11:26.966 --> 00:11:31.179

짧은 기간을 근무하시거나
파트 타임으로 일을 경험하시면서

00:11:31.204 --> 00:11:33.484

새로운 분야로 진입을
하셔야 하는 경우에

00:11:33.509 --> 00:11:36.199

그게 썩 내키지가 않으시는 거죠.

00:11:36.224 --> 00:11:40.359

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
정규직을 꼭 찾고 싶다거나

00:11:40.384 --> 00:11:43.250

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를
찾으려다 보니까

00:11:43.275 --> 00:11:47.859

자칫 생각보다 일자리가
눈에 잘 보이지 않으신다거나

00:11:47.884 --> 00:11:51.101

하시는 일 중에 10년 이상,
20년 이상 할 수 있는 일들이

00:11:51.126 --> 00:11:54.304

사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
4차 혁명 시대,

00:11:54.329 --> 00:11:57.781

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는
그렇게 혼하지는 않을 것이라

00:11:57.806 --> 00:12:01.765

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다소
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.

00:12:01.790 --> 00:12:03.699

경제력 추구형이라고 하는데요.

00:12:03.724 --> 00:12:07.117

제가 진단을 하면 경제력
추구형이라는 단어 쓰는 것들을

00:12:07.142 --> 00:12:08.796

되게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

00:12:08.821 --> 00:12:12.585

내가 돈만 많이 벌고 싶어 하는
사람이라는 의미냐?

00:12:12.610 --> 00:12:14.636

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.

00:12:14.661 --> 00:12:18.914

좀 예쁘게 영어의 원문을 살려서
이 유형을 설명드린다면

00:12:18.939 --> 00:12:22.568

비즈니스적 창의성이 있는
집단의 유형이라고 봅니다.

00:12:22.593 --> 00:12:26.550

이 비즈니스적 창의성이라는 말을
한국말로 좀 거칠게 풀면

00:12:26.575 --> 00:12:29.402

돈을 버는 재능이 있으시다는
의미이기도 해요, 사실은.

00:12:29.427 --> 00:12:33.987

예를 들면 똑같이 어떤 강의를 듣고
세미나를 듣고 회사 일을 하셔도

00:12:34.012 --> 00:12:37.717

경제력 추구형인 분들께서는
애기를 듣는 것들 중에

00:12:37.742 --> 00:12:40.300

이야, 이런 아이템으로
사업을 하면 대박나겠는데?

00:12:40.325 --> 00:12:42.214

이야, 이 아이템은
돈이 될 것 같아.

00:12:42.239 --> 00:12:45.027

이런 부분에 센스가
있으시다는 거죠.

00:12:45.052 --> 00:12:48.352

그냥 단순히 센스가 있는 정도에서
그치는 것이 아니라

00:12:48.377 --> 00:12:51.941

좀 위험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
실제로 본인이 만들고

00:12:51.966 --> 00:12:55.266

열고 싶어 하시는
기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

00:12:55.291 --> 00:12:57.859

새로운 어떤 조직에서
일하시는 분들 중에

00:12:57.884 --> 00:13:00.906

이 경제력 추구형이었던 분들은
왜 일하시냐?

00:13:00.931 --> 00:13:03.445

왜 회사에 다니세요,
창업 안 하시고? 하면

00:13:03.470 --> 00:13:06.687

창업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
이렇게 취업해서 일하는 거다.

00:13:06.712 --> 00:13:09.773

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
계실 정도라는 거죠.

00:13:09.798 --> 00:13:12.957

주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
남들이 하지 않는

00:13:12.982 --> 00:13:16.282

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
도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

00:13:16.307 --> 00:13:19.324

당연히 그만큼 내가 월급쟁이로
일하는 것들보다는

00:13:19.349 --> 00:13:21.023

더 많은 수준의 보상을,

00:13:21.048 --> 00:13:23.816

경제적 보상의 수준을

기대하실 수 있고요.

00:13:23.841 --> 00:13:25.945

그러니까 굳이 따지면
일은 내가 다 하는데

00:13:25.970 --> 00:13:30.125

왜 사업주가 돈을 벌어야 해? 라고
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

00:13:30.990 --> 00:13:34.290

다음 유형으로 앞에 말씀드렸던
유형과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.

00:13:34.315 --> 00:13:38.679

약간 반대쪽에 있는
유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00:13:38.704 --> 00:13:40.632

봉사&헌신 추구형인데요.

00:13:40.871 --> 00:13:44.304

어떤 분들은 봉사&헌신 추구형이지만
너무 오글오글합니다.

00:13:44.329 --> 00:13:46.492

나만 세상을 위하고

00:13:46.517 --> 00:13:49.460

사람들 돕고자 하는 사람이
우리만 있는 건 아닌데

00:13:49.485 --> 00:13:52.785

유달리 이런 표현을 쓰느냐
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

00:13:52.965 --> 00:13:56.265

사실은 사람을 돕거나
누구를 도와주는 일을 즐기거나

00:13:56.290 --> 00:13:58.582

이런 부분이 비단
봉사&헌신 추구형이다.

00:13:58.607 --> 00:14:00.691

이렇게만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.

00:14:00.716 --> 00:14:02.781

거꾸로 이렇게
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
00:14:02.806 --> 00:14:05.906

누구를 불편하게 하거나
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

00:14:05.931 --> 00:14:08.562

더 예민한 성향을
갖고 계신다는 겁니다.

00:14:08.587 --> 00:14:11.257

봉사&헌신 추구형은

돈을 벌기는 버는데

00:14:11.282 --> 00:14:13.171
내가 옆 가게에 약간 피해를 주거나

00:14:13.196 --> 00:14:16.531
이런 부분을 몹시 신경 쓰시는
유형이라는 겁니다.

00:14:16.556 --> 00:14:19.207
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
누구를 돕거나

00:14:19.232 --> 00:14:23.914
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
감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

00:14:23.939 --> 00:14:26.238
우선적으로 하시는 경우를 보고요.

00:14:26.263 --> 00:14:30.105
그래서 대다수 은퇴 후에
제2의 인생 설계하시고

00:14:30.130 --> 00:14:32.449
일을 하시는 영역이 자원봉사나

00:14:32.474 --> 00:14:34.871
봉사기관의 소속으로
활동하시는 것들이

00:14:34.896 --> 00:14:36.687
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.

00:14:36.712 --> 00:14:39.421
그래서 이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
사회 공헌 활동 등

00:14:39.446 --> 00:14:42.253
여러 가지 활동들을
조금 더 탐색해 보시는 것이

00:14:42.278 --> 00:14:43.933
좋을 것 같습니다.

00:14:44.512 --> 00:14:46.746
그리고 도전 추구형
말씀드리겠습니다.

00:14:46.771 --> 00:14:48.757
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도전 추구형은

00:14:48.782 --> 00:14:52.878
사실은 1990년대에는
없었던 유형이라고 하거든요.

00:14:52.903 --> 00:14:56.203
가만히 한자리에 머물러
계시는 것들을 싫어하시는데요.

00:14:56.228 --> 00:14:59.460

전문성 추구형처럼
내가 전문성을 개발하겠다는

00:14:59.485 --> 00:15:02.566
일련의 목적을 가지고
움직이시는 개념은 아닙니다.

00:15:02.591 --> 00:15:04.851
말하자면 재미있는 거예요, 그냥.

00:15:04.876 --> 00:15:08.176
저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
하면 뛰어들어서 도전하실 수 있는

00:15:08.201 --> 00:15:10.066
그런 용기가 있으시고요.

00:15:10.091 --> 00:15:11.941
아무도 도전해 보지 않은 것이야.

00:15:11.966 --> 00:15:13.816
아무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 하면

00:15:13.841 --> 00:15:17.566
도전해 보고 싶은 욕구가
생기는 분들이라는 겁니다.

00:15:17.591 --> 00:15:21.179
그런 맥락의 활동으로
꼭 연계선상에 있지 않더라도

00:15:21.204 --> 00:15:24.812
다양한 경험과 활동을
선호하시는 분들이고요.

00:15:24.837 --> 00:15:28.718
비교적 이런 분들이 노후의 인생을
설계하시는 것을 보면

00:15:28.743 --> 00:15:30.320
약간의 제한은 있겠습니다만

00:15:30.345 --> 00:15:32.410
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
새로운 도전,

00:15:32.435 --> 00:15:33.816
성취하실 수 있는 것들.

00:15:33.841 --> 00:15:38.928
분야를 막론하고 그런 활동들을
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00:15:39.206 --> 00:15:40.764
마지막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.

00:15:40.789 --> 00:15:43.850
이 유형도 최근에 사실
많이 있는 유형인데요.

00:15:43.875 --> 00:15:46.702

삶의 양식 추구형은 굳이 따지면
이런 겁니다.

00:15:46.727 --> 00:15:50.784
저도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
워킹맘인데

00:15:50.809 --> 00:15:54.514
요즘 20대 여성 분들과
남성 분들에게

00:15:54.539 --> 00:15:57.014
삶의 양식 추구형이
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.

00:15:57.039 --> 00:15:59.885
말하자면 일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.

00:15:59.910 --> 00:16:04.651
내가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
살고 싶다는 게 첫 번째라면

00:16:04.676 --> 00:16:07.483
일을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는
집단이라는 거죠.

00:16:07.508 --> 00:16:11.214
경력에 전혀 욕심이 없다,
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

00:16:11.239 --> 00:16:16.116
내가 살고 싶은 가족과의 생활이나
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

00:16:16.141 --> 00:16:17.913
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

00:16:17.938 --> 00:16:21.238
거기에 맞는 일을 선택하시는
군이라는 거죠.

00:16:21.378 --> 00:16:25.471
그래서 퇴직 후에 이런 활동을
하시는 것들을 보면

00:16:25.496 --> 00:16:28.089
여가와 병행해서
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

00:16:28.114 --> 00:16:29.065
선택하신다는 거죠.

00:16:29.090 --> 00:16:30.374
일이 우선이 아니고요.

00:16:30.399 --> 00:16:32.717
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을
할 수 있으면서

00:16:32.742 --> 00:16:34.749
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으신다거나

00:16:34.774 --> 00:16:38.074
일도 하루 종일 하시거나
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

00:16:38.099 --> 00:16:40.042
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

00:16:40.067 --> 00:16:43.518
이 유형의 특질이 강한 분들은
일자리를 찾으실 때

00:16:43.543 --> 00:16:47.717
조금 더 유연하게 원하시는 시간만큼
원하시는 활동을 할 수 있는

00:16:47.742 --> 00:16:51.936
여러 가지 활동들을
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

00:16:52.283 --> 00:16:54.553
이상 여덟 가지 유형
말씀을 드렸는데요.

00:16:54.578 --> 00:16:57.542
어느 유형인지에 대해서는
사실 설명 들으시면서

00:16:57.567 --> 00:17:01.936
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의 유형에 대해서
더 관심을 갖고 보셨을 것 같고요.

00:17:01.980 --> 00:17:06.148
이런 본인의 특성의 방향성에 맞춰서
어떤 일을 선택할 때

00:17:06.173 --> 00:17:07.339
가 보지 않은 길이지만

00:17:07.364 --> 00:17:10.386
조금 더 자신감 있게
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

00:17:10.411 --> 00:17:12.632
나중에 여러 가지
직업들을 찾으실 때

00:17:12.657 --> 00:17:15.113
방향성으로 활용해 보시면
좋은 것 같습니다.